

월드컵 소식

‘경고 누적’ 출장 정지 15명

퇴장 당한 선수는 5명

‘그라운드’의 거친 무법자기가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볼 적용의 희생자인가’ 2006 독일 월드컵에서 열심히 뛰고도 주위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선수들이 있다.

경고 누적이나 퇴장의 탓에 걸려 16강 진출 여부를 결정지을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에서 휘 수 없게 된 선수들이 바로 그들이다.

조별리그 전체 48경기 중 29경기를 마친 가운데 퇴장이나 옐로카드 2개를 받는 바람에 다음 한 경기 출장이 정지된 선수는 모두 20명.

국제축구연맹(FIFA)의 한층 강화된 규정에 따라 팔꿈치 가격이나 무모한 태클, 유니폼 잡아당기기 등으로 퇴장당한 선수는 5명.

또 심판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나 시간 끌기, 할리우드 액션 등으로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에서 뛸 수 없는 선수도 15명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선수가 중요할 때 벤치를 지켜 전력 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

프랑스의 중원 사령관 지네딘 지단(레알마드리드)이 대표적이다. 프랑스를 1998년 프랑스 월드컵과 유로 2000 정상으로 이끌었던 지단은 G조 조별리그 1차전(스위스) 때 주심이 휘슬을 불기 전에 프리킥을 하고 옐로카드를 받은



뒤 2차전(한국)에서도 불필요한 반칙으로 또 한번 경고를 받았다.

최고의 ‘죽음의 조’ E조의 출장 정지 선수들도 마음이 아프기는 마찬가지.

어느 팀도 16강 티켓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22일 일전을 앞둔 이탈리아(1승1무)와 체코(1승1패)는 경고 누적으로 삼체투성이다. 조 1위인 이탈리아는 미드필더 다니엘레 데로시가 미국전 때 팔꿈치 가격 시범 케이스로 퇴장 당했다.



<아르헨티나 메시> <가나 기안> <포르투갈 호날두>

셋별들 ‘눈에 띄네!’

메시·기안·호날두 등 월드컵 데뷔골 터뜨려

독일 월드컵이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세 별들의 활약이 서서히 그라운드를 달구고 있다.

이탈리아 골을 같은 활약은 보이지 않지만 1-2차전을 통해 중용되고 있는 어린 선수는 서서히 몸이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본선 출전 32경기이 자랑하는 신예들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당연히 골을 터뜨린 ‘영건’들.

리오넬 메시(19·아르헨티나), 아사모아 기안(21·가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1·포르투갈)는 이름값대로 일찌감치 골을 터뜨려 줬다.

부상으로 첫 경기에 결장했던 메시는 지난 16일(이하 한국시간) C조 2차전 세르비아-몬테네그로와 경기에서 후반 30분에 교체 출장해 몸이 근질거렸다는 듯 4분만에 월드컵 데뷔골을 터뜨렸다.

메시는 지난 해 세계청소년(20세 이하)선수권대회 득점왕(7경기 6골)과 최우수선수로 선정돼 일찌감치 세계의 주목을 받은 만큼 모두 기대한 골이었다.

골잡이 메시는 화려한 개인기에 탁월한 위치선정과 순발력까지 지녀 마라도나가 재빨리했다 소리까지 듣고 있다.

기안은 지난 18일 체코와 E조 2차전에서 전반 2분 크로스를 가슴으로 받아낸 뒤 베파라 같은 땅볼 마수잡이골을 터뜨려 관중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번 월드컵 무대에서 가나의 당당한 주전으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신예라고 보기에는 이름이 너무 널리 알려진 호날두는 17일 D조 2차전 이란과 경기에서 1-0으로 앞선 상황에서 췌기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득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호날두는 2004년 유럽선수권대회에서 포르투갈을 준우승으로 이끈 만큼 월드컵에서 보여줄 활약이 일찍이 관심이었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토고팀 출전수당 현찰로 지급”

스위스 ‘20미누텐’ 보도

토고 대표팀 선수들이 결국 출전 수당을 현찰로 받은 듯 한다고 스위스 언론이 보도했다.

19일 스위스 일간 무가지 ‘20미누텐’에 따르면 토고 대표팀 선수들이 18일 스위스와의 G조 2차전이 열리는 도르트문트행 비행기에 탑승하기를 거부하자 국제축구연맹(FIFA)이 개입, 결국 수당

이 현찰로 지급됐다. FIFA 대변인 안드레아스 헤렌은 “우리는 이성적으로 모든 관계자들에게 호소했고, 책임자들에게 선수들이 스위스와의 경기를 보이콧한다면 어떤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제시했다”고 말했다.

토고축구협회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지만, 오토 피스터 토고 대표팀 감독 등에 따르면 출전수당은 선수당 7만5천 유로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진흥-구미전자공고 전국 최강 가린다



19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제13회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준결승전 경동고-진흥고 경기. 3회말 중전안타로 2루까지 진루한 진흥고의 강병윤이 정영일의 우익수 플라이때 3루에서 세이프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동·부산공고 꺾고 결승에 올라



진흥고와 구미전자공고가 13번째 무등기의 주인 자리를 놓고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됐다.

진흥고는 19일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3회 무등기전국고교야구대회(광주일보사·대안야구협회 공동주최) 준결승전에서 경동고를 6-2로 완파, 지난 96년 3회 대회 이후 10년만에 무등기 우승을 노리게 됐다.

‘진흥 야구 명문’ 구미전자공고는 부산공고를 3-2로 꺾고 창단 4년만에 첫 전국대회 패권에 도전한다.

▲경동고 2-6 진흥고
진흥은 3-0으로 앞선 6회초 1사 2루서 선발 임요한을 내리고 ‘에이스’ 정영일의 동생 정형식(1년)을 중간계투로 올렸다. 하지만 1이닝을 버티지 못했다.

정형식은 볼넷 1개와 1안타로 1점을 내주고 1사 1,3루의 위기상황에서 형이 앉아있는 덕아웃을 힐끔 쳐다봤다. “형, 도와줘”.

KIA타이어즈에 2007년 신인 1차 지명된 ‘고교 특급’ 정영일은 곧바로 등판, 동생에게 1실점을 안긴 경동의 1루주자 김영은을 1,2루협살 아웃으로 그라운드 밖으로 내보냈다.

하지만 잠시 방심한 듯 경동고 6번 김정무에게 중전 적시타를 내주며 동생에게 1차책점을 안겼다. 이후 ‘고교 탐살전왕’ 답게 주

《오늘의 무등기》

《결승》
진흥고-구미전자공고(11시)
《양쪽이 선공·1루쪽 더그아웃·이상 무등경기장》

들뜬 모습을 보였다.

구미공고는 0-2로 뒤진 5회 2사 만루서 상대 투수의 폭투로 1점을 만회한 데 이어 6회에는 2사 2루서 이승민의 좌전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다. 구미공고는 2-2로 맞선 8회 선두타자 김병재의 우중간을 깨는 3루타에 이은 장운의 우전 적시타로 극적인 역전에 성공했다. 한편 결승전은 20일 오전 11시 KBS 스카이가 중계 방송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찬호 5승 쾌투

3일 피츠버그전 이후 3연승

‘코리안특급’ 박찬호(33·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대표팀의 4강 꿈이 실현된 성지에서 타선의 지원 속에 시즌 5승을 달성했다.

박찬호는 19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애인절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LA 애인절스 오브 애너하임과 인터리그 경기에서 선발 등판, 6이닝 동안 안타 5개를 맞고 3실점한 뒤 4-3으로 앞선 7회 2사 1,2루에서 슛 라인브리크로 교체됐다.

라인브리크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 박찬호의 자책점은 3점에 그쳤다.

샌디에이고가 7-3으로 승리하면서 박찬호는 텍사스 소속이던 지난해 4월14일 LA 애인절스를 상대로 역시 6이닝 3실점으로 승리를 따낸 뒤 1년 2개월만에 값진 승리를 올렸다. 애인절스전 통산 성적은 5승7패다.

97개의 공 가운데 스트라이크는 57개였다. 최고 구속은 150km에 이르렀고 삼진 4개와 볼넷은 3개였다. 지난 3일 피츠버그전 이후 3연승으로 시즌 성적은 5승3패, 평균자책점은 4.15를 유지했다.

샌디에이고 타선은 4-3으로 앞선 8회 중 3안타로 2점을 달아냈고 9회 한 점을 더 보태며 박찬호의 5승을 확실히 도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체조·레슬링 ‘금맥’

하룻동안 금 11개 추가

전국소년체전 오늘 폐막

폐막을 하루 앞둔 19일 제35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광주는 체조와 레슬링의 선전에 힘입어 하룻동안 금11개를 추가하며 크게 약진한 반면 전남은 여전히 부진에서 벗어 나지 못했다.

광주는 체조 꿈나무 박은경(체육중 3)이 19일 울주군민화생체육관에서 열린 체조 여중 평균대와 도마에서 금빛연기를 펼쳐며 18일 개인종합 금메달에 이어 3관왕에 등극했다. 이어 질세라 배기람(체육중 2)도 남중 평행봉과 도마에서 역시 금빛 연기를 뽐내며 지난 17일 개인종합 금메달에 이어 3관왕에 등극해 광주의 메달레이스에 힘을 보탤다.

씨름에서 박동환(용봉중 3)은 남중 용장급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레슬링 윤준식(체육중 3)과 장태성(체육중 3)도 각각 남중 자유형 42kg급과 자유형 85kg급에서 대구 이 승봉, 강원 신예섭을 누르고 금메달 2개를 보냈다. 수영에서는 기대주 김지현(화정남초 6)이 여중 배영 100m에서 1분 06초58로 금빛 물살을 갈았다.

이외에 김나라(상무중 3)가 태권도 여중 라이트 웰터급에서 강원 김은아를 제압하고 금돌려차기를 성공했고, 박선진(체육중 3)

은 양궁 여중 30m에서 금빛 과녁을 명중시켰다.

광주는 구기종목에서 정구의 여중 광주선발이 경남선발을 꺾고 은메달을 확보했고, 여중 배구 송원여중이 울산 중앙여중을 누르고 20일 금메달을 사실상 예약했다. 남중 하키도 송광중이 경북 안강중을 4-2로 제압하고 기대대로 금메달을 향해 순항했다.

광주는 체조의 선전에 힘입어 하룻동안 금메달 11개를 추가해 당초 목표 금 22개를 4개나 초과 달성해 당초 목표인 종합순위 9위를 사실상 예약했다.

반면 전남은 한경희(구례여중 2)가 이남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여중 양궁 50m, 개인종합, 단체전에서 금빛과녁을 명중시켜 첫 3관왕에 올랐다. 이외에 태권도에서 여중 라이트 미들급 김현진(순천남산중 3)과 남중 웰터급 정찬승(무안 현경중 3)이 금을 보냈고, 장승기(전남체육중 3)도 여중 역도 53kg에서 금을 더해 금메달 6개를 보냈으나 당초 목표에 못미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남은 단체종목에서도 정구 여중과 남중 전남선발, 탁구 여중, 배구 남초가 결승에 올랐으나 펜싱 남중 사브레와 예체, 배드민턴 남중과 여중도 결승에 오르지 못해 메달획득에 차질을 빚었다.

메달집계 결과 광주는 금 26, 은 10, 동 21개 전담은 금 15, 은 19, 동 20개를 기록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신예 오길비 US오픈 우승

5오버파...생애 첫 메이저 정상

호주 출신 신예 조프 오길비(29·사진)가 생애 첫 메이저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오길비는 1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매머로백 윈드풋골프장 서코스(파70·7천264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두번째 메이저대회인 US오픈골프 최종 라운드에서 2오버파 72타를 쳐 4라운드 합계 5오버파 285타로 정상에 올랐다.

2001년 투어에 합류한 뒤 작년 투산스쿠라 이슬러클래식에서 첫 우승을 따낸 오길비는 올해 액센츄어메치플레이오프인업스에 이



어 투어 통산 3번째 우승을 메이저 왕관으로 장식했다.

호주 선수사 US오픈을 제패한 것은 지난 1981년 데이비드 그레이엄 이후 25년만이다.

KIA 용병 서브넵 방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19일 한국야구 위원회에 용병 내야수 마이크 서브넵(30)의 웨이버 공시(방출)를 신청했다.

서브넵은 전날까지 40경기에 출장, 타율 0.224(143타수32안타), 4홈런 15타점의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KIA 관계자는 “서브넵이 한국 야구에 적응을 하지 못해 내린 결정”이라며 “대체 용병을 선발키 위해 미국으로 스카우트를 보냈고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20일(화)

▲제13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 결승전 (11:00·KBS SKY SPORTS)

▲메이저리그<오클랜드-콜로라도>(09:55·Xports)

▲일본 프로야구<라쿠텐-요미우리>(18:00·SBS스포츠)

▲프로야구<한화-LG>(18:00·KBS SKY SPORTS), <KIA-두산>(18:30·MBC ESPN)